

發 刊 辭

어느덧 매미소리가 멎고 높푸른 하늘, 황금들녘을 바라 볼 수 있는 節氣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가을걷이의 계절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炎天의 暴暑에도 불구하고 玉稿를 다듬어 보내 주신 本研究所 研究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法學」 제33권 제 2 호는 11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號에 게재된 논문들은 法制史, 基礎法, 公法, 民事法, 刑事法, 社會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本研究所 研究員 여러분들이 수행한 법제사적 연구, 외국법제의 소개, 법제도의 분석·평가, 제도적 개혁 내지 입법론 등에 관한 것이고, 서평으로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編, 『노동법연구』에 관한 孫昌燾 한국노동연구원장님의 육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이번 號의 특징은 이전의 「法學」과는 달리 논문의 핵심적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초록을 첨부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논문에 따라서는 이러한 영문초록 첨부작업이 있었으나 이번 號부터는 이를 통일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국내법 제도의 내용 및 법학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학술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려는 의도에 서이다.

끝으로 이번 號의 발간을 위해 바쁜 일과에도 영문초록 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安京煥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크게 수고한 음선필·조용만 조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2년 9월 30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權 寧 星